



고려대 의과대학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10반 조영주

안녕하세요 강남대성 자연 10반에서 공부를 했고,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조영주입니다.

수능을 본 후 처음 가채점을 한 뒤 재수를 하면서 가장 잘 봤던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좋게 나와 매우 놀랐고, 한편으로는 마킹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점수가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안도감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저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험생활>

재수를 하면서 달라진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패턴이었습니다. 현역 때는 체육 활동, 학교 활동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았는데 재수를 하면서는 수면 패턴을 항상 일정하게 했고, 매일 수업+자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능을 볼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생체리듬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부양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현역 때 자습시간을 정시를 목표로 자습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재수를 해보니 학교 선생님께서 정시는 재수생에 공부 양부터 밀린다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생활 주기는 거의 비슷한데 강대를 다니다 보면 쉬는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덩달아 공부를 할 수 있고, 점심 저녁시간에도 급식을 먹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고3 때는 시간도 부족하고 방법을 잘 몰라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려고 노력했는데 현역 수능 때 실패를 경험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메꾸는 것이 주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한 오답 노트 또 헛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가기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기보다는 오답노트를 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메꾼 후 다시 문제를 풀고 또 오답노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조금만 반복해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답노트를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알려면 또 개념이 완벽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래서 재수 초반에 개념 공부를 탄탄하게 한 후 문제와 오답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와 어떻게 극복했는지>

재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슬럼프, 공부가 안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슬럼프가 크게 2번 정도 왔는데요, 5월 즈음과 9평 이후였습니다. 제가 조기 선행반부터 진행했고, 또 몸이 약한 탓인지 5월부터 조금씩 힘이 빠지고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현재만큼 유지를 하고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시간을 조금 더 할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6평도 다가오고 긴장이 되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부가 안되고 집중이 안될 때는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약간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더 안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9평 이후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9평을 너무 잘 본 사람은 잘 본 사람대로, 못 본 사람들은 못 본 사람대로 고민이 많고, 몸이 지쳐가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환절기 즈음이라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많은 탈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 9평 시험을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하여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했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더니 감기에 걸렸고 일주

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컨디션도 수험생에겐 실력인 만큼 수능이 70일 남은 상황에서 매우 불안해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 회복과 또 정신 단련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몸 회복을 위해 비타민이 많은 링거를 맞으면서 낮잠을 자고 또 주말을 이용하여 잠을 푹 자서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정신 단련을 위해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채찍질을 받으며 공부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기간 동안 텐션을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재수를 하면서 재수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 6월 이후 9월 이후 수업이 듣기 싫고 자습만 하고 싶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데 휘말리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9월 이후 독학 재수학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신이 자기 절제 능력이 떨어진다면 재수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리듬이 깨져 남은 70여 일 동안 밀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없고, 수능 직전 70일은 재수 초반의 1년보다 더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패턴이 깨진다면 수능에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리듬입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생활 리듬이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안 좋은 컨디션이라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은 하루에 결정 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습을 많이 하고 싶은 또는 재밌는 것으로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불안감은 자신이 했던 공부에 대한 확신,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 또 문제 풀이 내공으로 그 긴장감 속에서 자신이 시험 별로 해야 할 일들의 리듬대로 따라간다면 평소 자신이 모의고사 보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보고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공, 자신감 그리고 확신들이 생긴다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